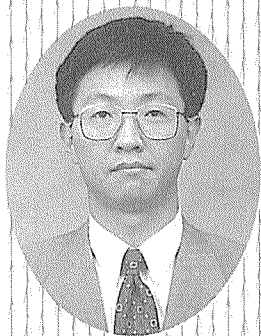


# 자원사절단 중동산유국 순방의 의미



安熙俊  
〈유공 원유·제품기획팀 과장〉

## 잊혀진 석유위기

지난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생한 중동 산유국의 석유공급 차질은 제3차 석유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 공황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석유시장에서의 실제 양상은 이전의 두 차례 석유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먼저,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5백만 B/D가 넘는 원유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원유부족으로 인해 정유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한 사례가 없었고, 또 국제 석유시장이 위기상황하에서도 수급과 가격 조절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상기능을 회복하였다.

오히려 사우디, 이란, U.A.E 등 잉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산유국이 상당량의 원유를 시장에 쏟아부어 석유 수입국들은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저장하였던 전략비축유를 충분히 활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국제 석유시장에서도 공급부족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요인으로 가격폭등이 있었지만 실물 구둑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이다.

미국 등 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불과 6개월여 만에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이라크 원유에 대한 UN의 금수조치가 아직도 유효한 가운데 석유시장은 또다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의 북해 유전과 아프리카 등지의 신규 개발유

전에서 非-OPEC 산유국의 원유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OPEC 산유국들은 생산능력 이하로 생산을 억제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가격 Leader 또는 Swing Producer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의 감소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에 시달리고 있다.

### 제3의 석유위기

이와같은 새로운 시장환경 하에서도 우리는 제3의 석유위기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하는가?

올해 들어 미국 및 유럽의 석유회사들이 재고등 운영비용의 감축을 통한 단기 영업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의 재고수준을 점차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즉, 이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는 석유시장의 실물공급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의 위험에 대하여도 석유 선물시장 등을 활용한 위험분산(Risk Hedging)에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과연 실물공급의 안정성은 향상되고 있는가? '94년에 OPEC 산유국은 하루 약 2,7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함으로써 세계 총 원유생산의 41%가량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아라비아 반도 및 주변의 중동 산유국은 세계 총 공급의 30%에 달하는 일일 약 2,000만 배럴을 생산하였다. 이같은 OPEC의 공급 점유율은 OPEC의 전성기였던 지난 '80년의 77%에 비하면 크게 낮아져, 일견 OPEC 또

는 중동 산유국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도 세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시장에서 중동산유국의 순수출량은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등 아직도 절대적인 공급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94년의 세계 석유소비는 피크를 이루었던 2차 석유파동 직전의 수준을 다시 넘어서 6,670만B/D에 이르렀으며, 향후에도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수요증가에 힘입어 매년 70~100만B/D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에 생산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전 개발의 효율과 수익성이 높아져 非-OPEC 산유국의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한된 매장량과 유전의 노후화에 따라 수 년내에 생산증가의 정체 또는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OPEC 산유국에 대한 공급 의존도는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非-OPEC의 생산증가와 이로인한 저유가의 지속이 OPEC 산유국의 생산시설 확장에 대한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대부분 신규 투자계획을 취소,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으며, 일부 산유국은 기존의 잉여 생산시설마저 수요부진과 유지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단기적인 공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완충역할을 하여왔던 잉여생산능력이 앞으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1990년의 걸프 사태와 같은 돌발상황이 닥쳐오는 경우 세계 석유시

그동안 완충역할을 하여왔던 잉여생산능력이 크게 감소하여 돌발상황 발생시 세계 석유시장은 이전보다 심각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의 모습은 과거 두차례의 석유파동 때보다 더 심각한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각국의 자원확보 노력

다른 일반상품과는 달리 석유는 단기간에 대체가 불가능하고,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실물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더욱이 산업화가 진전된 나라일수록 석유의 중요도는 크게 되며, 이에 따라 각국 특히 선진국의 석유자원 확보 노력은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지만 무역전쟁 이상으로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지난 걸프전쟁에서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막대한 군사력을 지원하고, 전쟁 종료 후에도 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그 세력을 유지하는 목적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지역에서의 이익, 즉 자원의 안정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력 이외에도 외교,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민간 자원무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은 중동 각국의 현지 대사관에 자원담당관을 두고 주재국 자원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과 민간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지 또는 전직 정보 각료급의 소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산유국 고위층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에 힘쓰고 있는데, 지난해 일본의 황태자와 영국의 전 수상인 대처 여사가 이 지역을 방문한

것도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금년 6월에 BP가 발표한 세계 석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일 석유소비비는 1,805천 배럴로 처음으로 영국의 소비량을 넘어서서 이탈리아 다음의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이 되었다. 원유 수입량은 하루에 1,574천 배럴로 연간으로는 575백만 배럴에 달하는데, 이 중 약 76%를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석유소비 수준은 불과 5년 전인 '89년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앞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사용효율의 증대를 감안할 때 수요증가 속도는 점차 수그러들 것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7%를 담당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인 확보와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과거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석유자원 안정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우리나라는 이후 석유의 비축과 대체에너지 개발, 그리고 소비절약을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석유가격의 폭락과 수급의 안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몇 년간의 국내 석유소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자원확보 정책은 다소 소극적인 형태를 보여왔다.

#### 우리 자원사절단의 중동순방

지난 9월초 우리나라 통산부 장관을 대표로 정부와 민간의 고위층으로 구성된 자원사절단이 사우디, 오

이번에 방문한 5개국은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54%가량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NG  
수요의 잠재공급처이며,  
에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유를  
개발하여 들여오고  
있는 곳이다.

만 카타르, 쿠웨이트 및 예멘 등 중동 산유국 5개국을 다녀왔다. 이번 자원 사절단의 중동 순방은 정부 차원에서는 '91년 이후 처음이었고, 그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순방시기가 국제 석유시장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크게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방문국과 에너지·자원 분야의 교역과 개발 측면에서 상호협력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석유위기의 재발시에 대비하여 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5개국은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절반 이상인 54%가량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국내 LNG 수요에 대한 잠재공급처이며, 특히 예멘은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유를 개발하여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곳이다.

국내 정유사의 대폭적인 정제설비 증설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안정공급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석유시장에서 석유제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 할 시점에 원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체제의 구축은 어느 때 보다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금번 자원사절단의 중동 5개

국 순방의 의미가 크게 돋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산유국과의 관계증진 뿐만 아니라 소비국 간에 에너지 분야의 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교환과 수급 비상시 회원국 간의 상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가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 Group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장기적인 안정공급을 꾀하고자 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흐름에 맞을 뿐더러, 정상시의 수급안정과 비상시의 수급대책 양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정책인 것 같다.

자유화와 개방화의 추세속에서 경제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강요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문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원분야는 자유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국의 의회와 정부에서 자원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을 종종 거론하는 것은 석유자원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자유화·개방화  
추세속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국가안보문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